
2026년도

명예해양수산관 1/4분기 활동실적

2026. 04.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I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현황	1
II . 2026년 1/4분기 활동실적 요약	2
III . 2026년 1/4분기 명예해양수산물별 세부 보고내용	11
1. 사모아	11
2. 피지	14
3. 파푸아뉴기니	23
4. 아르헨티나	29
5. 인도네시아	35
6. 가나	42
7. 세네갈	50
8. 뉴질랜드	58
9. 모리셔스	63
[참고] 명예해양수산물 현황 및 연락처	68

□ 개요

- (추진 배경) '09년부터 원양어업 거점 및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정보 수집, 현지 진출기업 지원 등을 위하여 명예해양수산물 위촉운영
 - * (근거 :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물로 위촉, 연안국 자료·정보수집 등의 임무 부여
- (주요 임무) 해외 주재국의 원양·수산물 관련 자료·정보 수집, 투자 환경 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등

□ 운영 현황

- 원양산업 또는 수산업 종사자 등 교민 위주로 '26년 현재 총 9개 지역에서 9명 활동
- 명예해양수산물 활동실적보고
 - 각 명예해양수산물별 활동내용을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수요자들에게 정보제공
 - (정기보고) 명예해양수산관은 매익월 10일까지 해외수산협력센터 보고, 센터는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수시보고) 해난사고 등 긴급 상황 및 해양수산부, 업계 요청 정보·자료에 대한 수시보고

1. 사모아

◆ 활동실적 요약

○ (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미국, MMPA 기준 미충족 해산물 수입금지 시행

○ (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사모아 해양 수산업 동향

○ (3월)

구분	주요 내용
사회동향	- 사모아 정부, 지역 개발을 위해 약 9천만 탈리(약 3천만 달러) 지원 - 사모아 보궐선거에서 FAST당 후보 압승
경제동향	- 중동 긴장 고조로 태평양 지역 연료 가격 상승 우려

2. 피지

◆ 활동실적 요약

○ (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수산부 고위간부회의 결과 및 '26년 전략적 우선순위 발표 - 태평양 도서국, 영국 지원 어업감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외교동향	- 수산임업부-JICA, 태평양 도서국 연안 해양경제 활성화 사업 협약체결 - 피자일본 협력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장비지원 확대
경제동향	- 2025년 12월 물가 안정 속 소비·투자 완만한 회복 평가 - 민관 파트너십과 경제다각화를 기반으로 2026년 성장 가속화 전망
환경동향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고위험 수로 부표 설치 확대 추진
사회·노동동향	- 피지 노동시장 농업 중심 구조 지속

○ (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나틸라 마을, 지역사회 기반 해조류 양식 시범사업 본격화
외교동향	- 피지-한국, 비전염성 질환 대응 위한 디지털 보건 협력 추진 - 도화엔지니어링, 피지 마코가이 해양양식 연구센터 시설개선 협의
경제동향	- 2025년 피지 물가 동향: 교역재 디플레이션과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의 공존

○ (3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태평양 수산포럼(FFA), 태평양 참치 관리 강화 - 유럽연합(EU), 태평양 지역과 주요 해양 파트너십 갱신 - 피지해군, 감시 능력 강화 검토
외교동향	- 일본, 개발지원확대 약속 - 피지 - 호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 필리핀, 피지에 상주 공관 설립

3. 파푸아뉴기니

◆ 주요 외교 활동

- PNG 수산청장과의 미팅. PNG 수산청은 2025년까지 VD 판매 및 외국어선 관리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일본 JICA 등과 협력하여 국내 수산업 진흥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임 ('25.12.19)

◆ 활동실적 요약

- (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수산업 소식 (수산청장 미팅, 2025년도 해삼사업 종료) - 파푸아뉴기니 국경선 순찰 강화

- (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연근해 어업의 개발 계획 - 연근해 어업발전에 대한 저해 요소들 - 각 분야별 근본적 문제들 - ODA관련 사업 아이템 제안

- (3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PNG ODA관련 대외활동 - 수산업 동향 (새우, 건해삼)

4. 아르헨티나

◆ 활동실적 요약

○ (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2026년 오징어 시즌 시작 - 가오리, 홍어 쿼터 도입

○ (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홍어 및 가오리 어획량 조정 - 포클랜드 제도, 3년 연속 오징어 시즌 중단 - 페루, 대왕오징어 남획 방지 위한 기술적 금지조치 시행
경제동향	- 임금 인플레이션 상회 : 실질소득 개선세
외교동향	- 티에라 델 푸에고 주정보, 불법조업 관련 스페인, 한국, 중국에 경고 서한 발송
환경동향	- 남대서양·남극 생태계 보존 이슈 지속

○ (3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아르헨티나 오징어, 대왕오징어 현황 - 2026년 어업활동 요약
외교동향	- 한국국적 어선의 선원, 남대서양에서 건강 이상 보여 아르헨티나 해군에 의해 이송

5. 인도네시아

◆ 활동실적 요약

○ (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재난피해지역 어업허가 우선처리 - 2025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결산
경제동향	- 인도네시아 36개주 2026년 최저임금 발표
외교동향	- 인도네시아-일본 협력, 어민 역량 강화 지원

○ (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인도네시아, ISO 인증으로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 국가대표 어촌마을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 - 일본 수출 참치·가다랑어에 관세 0% 적용 지원 확대

○ (3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최근 3개월간 미국에 '세습 무검출' 인증 새우 1,852개 컨테이너 수출 - 라마단 기간 중 유통 수산물 품질 보장
외교동향	- 호주-인도네시아, 안보협력 조약 체결 '중국 견제'
기타동향	- 인도네시아 라마단 설명

6. 가나

◆ 주요 외교 활동

- 재가나 한인 기업인 간담회 참석 ('25.12.16)

◆ 활동실적 요약

- (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부통령, 수산부문 리셋 점검 2026 식량주권 확보 위한 '어업 재도약' 선언 - 2026 예산 심의에 어업인 역사적 참여 환영 - 국회, 2026년도 수산·양식 예산 4억 2,800만 세디 승인

- (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가나 Trawl어업 부문, 참치 채낚기 어업에 이어 붕괴 위기 직면 - 불법어업, 불타 연안서 급증 수산자원 고갈 우려
국제협력동향	- 중국수산과학원과 협력, 가나 수산·양식업 발전 박차

- (3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수산부, 산업 트롤어업자와 협의 - EU 레드카드 가능성 경고 - 정부, 프리믹스 연료 기금 회수 및 개혁 착수 - 가나, 첫 해양보호구역(MPA) 다음 달 지정

7. 세네갈

◆ 활동실적 요약

○ (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생루이에 인공 암초 조성 - 2026년 사업 계획
국제협력동향	- 카사망스 해양 개발 : 세네갈과 네덜란드, 협정 체결

○ (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사고 / 어업법 개정 추진 - 조업권 이슈 - 신규 인프라 구축 - Thies 중앙 수산시장 개장
투자동향	- 주요 국책 사업 발표 및 3대 공기업 우선 회생 대상 지목
국제협력동향	- EU, 해상 범죄 대응 위해 세네갈 해군에 고속정 공여

○ (3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서아프리카 연합 어업 감시작전 “ESPADON“
국제협력동향	- 세네갈 - 감비아 간 어민 지원 및 해양협력 강화 - EU - 세네갈 어업협정 관련
일반동향	- 세네갈 소형 어선용 FLOATING DOCK ODA 사업 제안

8. 뉴질랜드

◆ 활동실적 요약

○ (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뉴질랜드 어류 자원에 대한 심층 보고서 발표 - 독에서 진통제로 - 뉴질랜드 과학자들, 차세대 진통제 개발 위해 독성 미세조류 배양

○ (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뉴질랜드, 태평양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 조용히 폐기... 고비용 계절 비자로 대체
환경동향	- 뉴질랜드 바다,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뜨거워지는 중

○ (3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뉴질랜드 수역 어업 개편 논란

9. 모리셔스

◆ 활동실적 요약

○ (1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UNECA 보고서, 서부 인도양 해양 위협으로 연간 11억 달러 이상 경제적 손실 발생 경고
국제협력동향	- 인도양 포커스: 이란-모리셔스,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 (2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항만 개발 논의
환경동향	- 모리셔스 Greenpeace Africa 사무소 개설 및 인도양 해양 보호 활동

○ (3월)

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동향	-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 보존 관련 브리핑 - 해양 주권: 불법 어업에 맞선 지역 협력을 촉진한 Jahazi 프로젝트

1. 사모아

◆ 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동원산업	MYLO	2026-01-03/	하역	Pagopago	

나.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5. 12. 29.	Clipper Oil (American Samoa)	0.85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눈다랑어	(라운드)	\$1,500 M/T	
가다랑어	(라운드)	\$1,300 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미국, MMPA 기준 미충족 해산물 수입금지 시행. 2026년부터 참치 등 직격탄
 - 미국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의 ‘비교 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산물에 대해 수입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참치를 중심으로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NOAA 산하 NMFS는 비준수 어업에서 생산된 해산물의 경우 정부 승인서(COA)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효한 COA가 없는 선적은 통관이 거부될 방침임.

◆ 2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동원산업	MYLO	2026-02-02/ 2026-02-07	하역	Pagopago	

나.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유종
2026. 01. 29.	Clipper Oil (American Samoa)	0.748 USD/L	MGO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사모아 해양 수산업 동향

- 현재 아메리칸 사모아 지역은 비수기로, 주요 조업활동은 다음 어기를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임. 현지 선단의 조업은 통상 4월경 시작되어 11월 전후로 마무리되는 경향을 보이며, 어장 상황에 따라 약 1개월가량 연장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현재는 본격적인 어기 재개를 앞두고 선단 및 관련 업계가 대기 중인 시기로 파악됨.
- 최근 동원어업 소속 M/V MYLO가 하역 작업을 위해 파고파고 항에 입항하여 StarKist Samoa 공장에 하역을 완료한 후 출항하였음. 아메리칸 사모아의 참치 산업은 지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StarKist Samoa는 연간 10만 톤 이상의 참치를 가공하는 주요 시설로 알려져 있음.

◆ 3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 격	유종
2026. 03. 02.	Clipper Oil	0.753 USD/L	MGO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날개다랑어	(라운드)	\$2,800 M/T	Star-kist Samoa Co.제공
가다랑어	(라운드)	\$1,500 M/T	

다. 기타사항

- 사모아 정부, 지역 개발을 위해 약 9천만 탈라(약 3천만 달러) 지원
 - 사모아 정부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약 9천만 사모아 탈라(약 3천만 달러) 규모의 개발기금을 전국 각 지역에 배분하기로 했음. 이번 기금은 도로 정비, 지역 공공시설 확충, 농업 생산 지원,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임.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음.

- 사모아 보궐선거에서 FAST당 후보 압승
 - 2026년 2월 사모아의 Vaisigano 2 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집권 여당인 FAST(파아투아 이 레 아투아 사모아 우아 타시)당 후보가 약 80%의 높은 득표율로 승리했음. 이번 보궐선거는 기존 의원이 당적을 변경하면서 의석을 반납하게 되어 치러진 것으로, 선거 결과를 통해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치적 기반이 여전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음.
 - 또한 이번 결과는 사모아 정치 구도에서 여당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국정 운영에서도 집권 여당의 주도권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음.

- 중동 긴장 고조로 태평양 지역 연료 가격 상승 우려
 -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군사적 긴장과 충돌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태평양 도서국들의 연료 가격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음. 특히 사모아를 포함한

태평양 국가들은 대부분 석유 및 연료를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연료 가격 상승은 해상 및 육상 물류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전력 생산 비용과 생활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이러한 상황은 수입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태평양 도서국들의 경제 안정성에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음.

2. 피지

◆ 1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1. 09.	TOTAL	1.045 USD/L	MGO	내주변동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700/ ton	로인가공용(PAFCO)

다. 해양·수산업 동향

- 피지 수산부 고위간부회의 결과 및 26년 전략적 우선순위 발표
 - 피지수산부는 2026년 첫 고위간부회의에서 연안어업관리법안과 양식업 시행령 추진, 해양공간계획 수립, 원양어업관리법 검토 등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발표함. 또한 부처 로고 공개와 검문소 안내판 개보수 등 행정 효율성과 브랜드 일관성 강화 방안이 논의됨.
 - 아울러 해삼채취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됐으며, 법률·

계약 사전 검토를 위한 전담 법률부서 설치 필요성이 강조됨. 관계자들은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와 지역 어업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촉구받음.

□ 피지 수산임업부-JICA, 태평양 도서국 연안 해양경제 활성화 사업 협약 체결

- 피지 수산임업부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는 2025년 8월 양국 간 교환된 외교협정을 기반으로 태평양 도서국 연안 해양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피지 수산임업부가 주도적 이행기관으로서 JICA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연안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해양경제 활성화를 통해 피지 및 주변 지역의 장기적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기로 했음.

□ 태평양 도서국, 영국 지원 어업감시 역량강화 프로그램 추진

- 태평양 15개 섬나라는 영국 지속가능 해양경제 기술지원 플랫폼의 일환으로 태평양제도포럼 수산기구와 협력해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감시 및 단속강화 훈련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분석, GIS 지도작성, 선박추적, 항공순찰, 위성이미지 활용 등 고급 감시기술과 표준 운영절차를 교육받아 지역 전반의 일관된 단속을 강화하고 식량 안보와 생계, 지역경제 보호를 도모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의 장기적인 경제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피지 정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고위험 수로 부표 설치 확대 추진

- 피지 정부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수로 8곳을 대상으로 새로운 부표 설치 시설을 1월 초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이번 프로그램은 쓰레기가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도시 하천·강·배수 시스템을 중심으로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가 산호초와 해안선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환경기후 변화부는 트래시뮴 퍼시픽과 기술 평가, 유지보수 및 향후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정부는 지역사회 청소 활동과

국가 폐기물 관리 노력과 연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2026년에는 더 많은 쓰레기 집중 지역을 파악했다고 밝힘.

라. 기타 동향

- 피지-일본 협력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 장비 지원 확대
 - 피지는 일본 정부 및 JICA와 1,200만 달러 규모의 협정에 서명하며 덤프트럭, 압축기, 굴삭기 등 최첨단 폐기물 관리 장비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받을 예정임. 이번 협력은 도시화로 증가하는 폐기물 문제 대응과 현대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일환으로, 피지-일본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반영함.
 - 노후 장비로 인해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일본의 장기적인 장비 지원에 대한 감사도 함께 표명됨.

- 피지 중앙은행, 2025년 12월 물가 안정 속 소비·투자 완만한 회복 평가
 - 피지 중앙은행은 2025년 12월 경제보고서에서 물가상승률이 0%로 안정세를 유지했으며, 일부 물가 상승은 운송·연료비 하락으로 상쇄되고 부가가치세 인하와 임금 상승, 해외송금 증가에 힘입어 소비가 견조했다고 평가함. 다만 수입 증가가 수출을 상회하며 무역적자가 확대됐고, 건축허가·대출 증가 등 투자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였으나 외부 충격과 국내 구조적 위험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필요성이 강조됨.

- 2025년 9월 분기 대외수지 적자 전환 및 무역 압박 심화
 - 피지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분기 경상·자본수지는 1억 1,23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흑자에서 크게 악화됐으며, 이는 기계·운송장비 수입 증가와 식량·가축 수출 감소, 연료재수출 및 해외송금 감소 영향으로 분석됨. 특히 경상수지 순수출 확대와 상품·서비스수지 적자 급증으로 대외무역 부담이 커졌고, 본질소득수지는 적자 상태이나 해외투자소득 증가로 일부 개선됨.

국내소득수지는 흑자를 유지했지만 규모가 축소됐으며, 금융계정 적자는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피지 재무부, 민관 파트너십과 경제다각화를 기반으로 2026년 성장 가속화 전망
 - 피지 재무부는 투자자 신뢰 회복과 정부·민간 협력 확대를 바탕으로 2026년 경제 성장과 혁신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2억 달러 이상의 유동성, 약 38억 달러 외환보유고, 민간 신용 확대와 3.4% 성장률 전망을 견조한 경제 지표로 제시함. 정부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 허가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혁을 통해 경제 구조를 현대화하고 재생에너지·디지털 서비스·농업·제조·고급 관광 등 산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음.
 - 또한 투자청은 농업, BPO, 부동산, 관광 분야에서 투자자 참여가 증가하고 다국적 기업 프로젝트가 2026년 착수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장기적인 투자 확대 기대감을 시사함.

◆ 2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2.9.	TOTAL	\$1,041/MT	MGO	내주변동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 상	\$2,600/ ton	로인가공용(PAFCO)

다. 기타사항

- 2025년 피지 물가 동향: 교역재 디플레이션과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의 공존
 - 2025년 피지는 연초 2.5%였던 물가상승률이 2월 이후 마이너스로 전환돼 연중 대부분 디플레이션을 기록하고 12월에는 0% 수준으로

회복되는 등 물가 흐름의 전환점을 보임. 식품·무알코올 음료와 운송 부문의 가격 하락이 전반적인 물가 약세를 주도했으며, 이는 수입가격 하락과 글로벌 공급망 개선, 연료비 부담 완화 영향으로 분석됨.

- 다만 주류·담배, 레스토랑·호텔 등 일부 서비스 분야에서는 비용 압박이 지속되며 부문 간 물가 격차가 나타났고, 향후 전체 물가는 안정세가 예상되지만 경쟁이 제한된 서비스 영역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됨. 연료 가격은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나 2분기 이후 경질연료 중심의 점진적 상승 전망이 제시됨.

□ 피지-한국, 비전염성 질환 대응 위한 디지털 보건 협력 추진

- 피지 내각은 보건부와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Healthcare 간 약 100억 원 규모의 지원 양해각서를 승인했으며, 당뇨병 예방·관리 중심의 NCD 대응과 국가 디지털 건강전략 이행을 지원할 계획임. 지역 보건 인력 역량 강화와 원격진료 체계 구축, 스마트 디지털 의료 솔루션 도입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환자 관리 개선을 목표로 하며, 해당 사업은 2030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피지의 장기 보건정책과 연계된 협력사업으로 평가됨.

□ 피지 정부, 국경안전 강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정보공유 강조

- 피지 재무부는 국경안보 강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상시 경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청을 합법적 무역과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지능형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힘. 경찰청은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과 태평양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으며, 양자 파트너들과의 첩보 협력을 통해 항구 경로를 이용한 마약 및 불법 물품 밀반입을 지속적으로 단속·압수하고 있다고 평가됨.

□ 도화엔지니어링, 피지 마코가이 해양양식 연구센터 시설개선 협의

- 한국 도화엔지니어링 대표단은 피지 Makogai Mariculture

Research Centre 시설개선 사업 논의를 위해 수산·임업부 차관 대행과 회의를 갖고 설계 범위 변경사항과 착공 전 행정·조정 과제를 점검함. 피지 측은 이번 사업이 해양양식 연구역량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연구 거점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으며, 연구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어업 개발을 위해 개발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마코가이 센터가 해양자원 관리와 회복력 강화의 핵심 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됨.

◆ 3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3. 9.	TOTAL	1.074 USD/L	MGO	내주변동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ALBACORE	10kg상	\$2,500/ ton	로인가공용(PAFCO)

다. 해양 수산업 동향

- 태평양 수산포럼(FFA), 태평양 참치 관리 강화
 - 태평양 수산포럼(FFA)은 거버넌스와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태평양 참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FFA 사무총장은 최근 독립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 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참치가 많은 회원국의 국가 재정과 개발 정책의 핵심 자원인 만큼 효과적인 관리가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회복력과 장기적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기후변화, 자원 변화, 기술 발전, 국제 관심 증가 등 복잡한 환경 속에서 FFA가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함. 피지 어업부 장관 역시 참치 산업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술 활용과 지역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EEZ 관리 강화, 물류·공급망 개선, 정책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참치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함.

□ 유럽연합(EU), 태평양 지역과 주요 해양 파트너십 갱신

- 유럽연합(EU)은 태평양-EU 해양 파트너십 2단계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약 5,200만 달러를 지원하며 태평양 지역과의 해양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해당 사업은 태평양공동체(SPC), 태평양 제도포럼수산기구(FFA), 남태평양대학교(USP) 등과 협력해 추진되며, 해양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함.
- EU는 이번 협력이 해양 보호에 대한 공동 책임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FFA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획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또한 프로그램은 태평양 지역의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며, ‘푸른 태평양 2050 전략’ 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부합하는 해양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피지해군, 감시 능력 강화 검토

- 피지 해군은 광범위한 해상 국경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감시 역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음. 해군 사령관은 현재 전용 항공 감시 자산이 없어 해상 감시 능력이 제한적이며, 항공기와 드론이 합정보다 넓은 해역을 빠르게 순찰할 수 있어 해양 안보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정부는 해상 순찰 강화와 인도적 지원·재난 대응 능력 확대를 위해 전용 항공기 도입을 검토 중이나, 현재 항공 플랫폼 부재로 인해 작전의 독립성과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따라 항공 감시 체계를 구축해 항공 자산은 광역 감시를 담당하고 해군 함정은 차단 작전에 집중하는 방식의 해양 안보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다. 기타사항

□ 일본, 개발지원확대 약속

- 피지와 일본은 최근 고위급 방문과 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시티베니 라부카 피지 총리의 일본 방문은 양국 협력 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양국 정상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피지 로마바타 키즈나 파트너십’에 서명함.
- 일본은 기후 대응, 재난 복원력, 인프라, 재생에너지, 공중보건, 교육, 해양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통의 가치와 원칙을 바탕으로 태평양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키즈나(Kizuna)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강조함.

□ 피지 - 호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지원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 피지 관광항공부는 호주 정부의 시장개발기금(MDF)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관광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력은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양측의 관광 개발 및 민간 부문 지원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며,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함.
- 협약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관광 개발, 바누아 기반 관광 가이드 라인 지원, 외딴섬 관광지 지도 작성 등을 통해 해양 관광 확대가 추진될 예정임. 또한 신흥 관광지의 수용 능력 평가와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 포용적 관광 정책을 강화하여 피지 관광 산업의 혁신과 민간 부문 참여 확대를 도모할 계획임.

□ 필리핀, 피지에 상주 공관 설립

- 필리핀은 초대 피지 상주대사를 임명하고 수바 대통령궁에서 신임장을 제출하며 양국 관계 강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함. 노엘 M. 노비시오 대사는 라투 나이카마 탈라발라부 피지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출했으며, 피지 대통령은 필리핀 상주 공관 설립이 양국 관계 확대에 대한 필리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함.

- 노비시오 대사는 양국 간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며, 필리핀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지역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아세안-태평양도서국포럼 장관급 회담을 통해 양측이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협력과 대화를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밝힘.

3. 파푸아뉴기니

◆ 1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6. 1. 8.	TWL Logistics Ltd	0.7658 USD/L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해양수산업 동향

□ PNG 수산청장과의 미팅

- 지난 12월 19일 파푸아뉴기니 수산청장과의 면담에서 2026년 수산청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함. 청장은 2025년까지 선망선 중심의 양자협약 확대와 국내 조업 외국선박 증선으로 가공공장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했고, VD(Vessel Day) 판매 완료를 통해 재정 기여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함. 특히 양자협상과 LBFV 조업일수 배분 과정에서 VALATOP 방식 등을 적용해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함.
- 아울러 2026년부터는 VD 판매 중심 구조를 넘어 국내 수산업 진흥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일본 JICA 및 YAMAHA와 연안 수산업 개발 협력을 진행 중이며 수산청도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 논의에 높은 관심을 표명함.

□ 2025년도 해삼 사업의 종료

- 12월 31일부로 해삼 채취·매매가 다시 금지되며 약 2개월 반간의 한시적 교역 허가 기간이 종료됨. 2018년 이후 중국 자본의 적극적 개입으로 PNG 자국 수산업자의 참여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향후 몇 차례 시즌이 지나면 해삼 산업에서 현지인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됨.
- 한편 1월 26일 중국 해관총서(GACC)가 PNG를 방문해 바다가재

취급 대표 업체 3곳을 시찰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2026년 중국향 바다가재 수출 재개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파푸아뉴기니 국경선 순찰 강화

- 지난 12월 말 PNG 수산청은 일본으로부터 해양순찰선 3척을 매입하고 포트모즈비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함. 이어 1월 6일에는 웨스턴주 다루 섬에서 호주 측과 협력해 해양 모니터링 센터 개소식을 진행하며 감시 역량 강화를 추진함.
- 이번 순찰선 도입은 무상원조가 아닌 PNG 정부의 직접 매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인도네시아와 접한 웨스턴주 및 웨스트 세픽주 해역에서 불법조업 대응과 해양 주권 보호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6. 2. 9.	TWL Logistics Ltd	0.7718 USD/L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활어 바다가재	2kg up	68 USD/kg	
	1.5kg~2kg	63 USD/kg	
	1kg~1.5kg	56 USD/kg	
	800g~1kg	52 USD/kg	

다. 해양수산업 동향

□ PNG 연근해 어업의 개발 계획

- 2025년 12월 말 PNG 수산청장과의 면담에서 청장은 Valatop 기반 어획일(Value Day, VD) 판매 방식을 도입해 원양 선단에 새로운 판매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일관된 어업권 판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평가함. 아울러 2026년부터는 VD 판매 중심 구조를 넘어 연근해 어업 발전과 어민 소득 향상을 위한 실행 중심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구체적으로 Blue Swimmer Crab 시험조업 지원, Gulf of Papua Prawn Fisheries의 2026년 MSC 도입 투자 지원, Western Province 연근해 어업 타당성 조사(JICA·YAMAHA 참여), 수산청 산하 공기업 FCL을 통한 연안 수산업 투자 확대 등을 추진 중임. 또한 틸라피아·송어 양식 지원과 해삼 양식 투자 유치 등 양식 분야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사료의 해외 의존과 공급 불안정·고비용 구조가 산업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지적됨.

□ 연근해 어업 발전에 대한 저해 요소들

- PNG 수산청은 연안어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낙후된 조업 방식과 전문성 부족, 협소한 시장 구조, 사회간접자본 미비 등으로 성과 창출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어종별 데이터 축적 부족, 맞춤형 어구·조업 방식에 대한 법적 허가 미비, 조업선 및 숙련 선원 부족, 외국인 대체 인력 활용의 제약 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됨.
- 또한 수익성 확보에 대한 인식 부족과 지속가능성만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지원 산업 및 인프라 미개발, 일부 공무원의 행정 역량 및 윤리성 문제, 지역사회 내 협력 문화의 미성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연안 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평가됨.

□ 각 분야별 근본적인 문제들의 예

- 정부 : PNG 연안어업은 현실과 맞지 않는 법·제도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새우 조업의 경우 3마일 외측 조업만 허용되나 실제 자원 분포와 조업 여건이 부합하지 않아 수익 창출이 곤란한 구조이며, 이로 인해 정부·업계·지역 주민 모두가 손실을 입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수산회사 : 조업 부진으로 수익 창출에 실패한 수산회사들은 선박 노후화와 높은 유지비 부담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선원 수급 취약, 유가 상승, 팬데믹 이후 수산물 가격 하락 등 외부 충격까지 겹쳐 산업 전반이 침체 국면에 놓여 있음. 또한 지역 주민의 조업 방해와 by-catch 강탈, 무단 침입 등으로 안전 위험이 지속되나 이를 관리할 제도적 대응은 미흡한 상황임.
- 지역주민 : PNG 연안 주민들은 적절한 어선·어구와 시장 접근 수단이 부족해 자급적 어업에 머물러 있으며, 상업적 전환 과정에서는 규제와 초기 투자 부담, 금융 접근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일부는 조업선 어획물 탈취 등 비공식적 방식에 의존하며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자본·기술·시장 기회 부족이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ODA관련 아이템 제안

- PNG 수산업 발전을 위해 ▲Lae Wagang Wharf 확충 ▲Port Moresby 수산 전용항(Fish Port) 건설 ▲Lae 대형 냉동저장시설 구축 등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양어선 하역과 유통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음. 또한 해삼·새우·바다가재 중심의 현대식 양식장 설립과 기술 이전, 소형 어선 건조 지원 및 관련 조선 인프라 구축이 연안어업 활성화에 요구됨.
- 아울러 PNG 수역 내 체계적 수산자원 조사와 어종 데이터 구축을 ODA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수산 사료 생산 기반을 조성해 양식·축산과 연계한 자급형 산업 생태계로 확장하는 전략도 검토 가능함.

◆ 3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6. 3. 9.	TWL Logistics Ltd	K3.4968=0.8162USD/L (부가세 10% 포함 안됨)	Diesel

나. 해양수산업 동향

□ PNG ODA 관련 진행사항

- PNG 수산청 산하 공기업 FCL의 Mr. Mark Ivekolia와 협의를 통해 PNG 수산 인프라 및 산업 발전 관련 주요 사업과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원양협회에 전달함. 주요 사업으로는 Lae 지역 부두 건설과 Port Moresby(POM) 수산 전용 부두 건설이 제시되었으며, Lae 부두 건설은 약 400억 원 규모, POM 수산 부두는 약 100억 원 내외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연안어업 활성화를 위한 소형 어선 국내 건조와 양식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언급됨. PNG는 인도네시아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로 자국 어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양식업의 경우 탈라피아와 송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료 수입 의존과 높은 물류비 등으로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PNG 수산업 동향

- 새우관련 : 작년 말에 급락한 새우 가격은 26년의 어획이 4월에 개시함에 따라 시장 가격의 변동 등의 정보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때 많은 어려움이 대두할 것으로 보임. 그 이유는 국제 시장 가격의 하락,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의 급등, 25년에 이은 조업량의 하락 때문임
- 건해삼 관련 : 중국 시장의 사업 장향의 변화 : 이전의 중국 건해삼 시장은 질보다 양으로 승부를 하는 관계를 무한 경쟁이 펼쳐 지기도

하였으나, 25년도 PNG 국내 진입 중국 상인들은 경쟁 보다는 양질의
상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임. 이는
20~30년간 중국인들의 사업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것임.
중국인들에게서 더 이상 독점적 사업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그들이 이 산업을 잠싨했다는 인식일수도 있다고 보임. 하지만
PNG 자체 인프라와 운송의 어려운 점 등으로 인하여 PNG자국민
들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임

4. 아르헨티나

◆ 1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6. 1. 6.	Epsol YPF (국영기업)	1.23 USD/L	MGO

나.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 회사(기관)	지원(협의) 내용
2025. 11. 17. 유선활동	comodoro지방 (파타고니아) 해경청	- OCEAN PARK 선박이 기상악화로 인한 아르헨티나 EZZ지역내에서 저속운항을 불법 조업으로 의심/오인. 해경과 운항중인 선박 사이에서 중재하여 해경의 출동저지. - 당시 선박은 5노드로 항해 중이었고 풍속 52노드, 파도 6미터 상황에 있었음

다. 해양·수산업 동향

- 2026년 오징어 시즌 시작. 가격과 수요에 대한 기대
 - 2026년 일렉스 아르헨티누스 오징어 시즌은 49° S 이남에서 조기 개시되었으나 폭풍우로 항만 배치가 지연되었고, 자원 분산으로 단기 어황 판단이 어려운 상황임. 어장 인근에는 약 62척의 지거선이 운항 중이며, 200해리 밖 외국 선박도 유사한 전망을 보고함.
 - 물류 측면에서는 일부 선박의 냉장 설비 문제 등 변수가 발생했으며, 마르델플라타가 주요 허브로, 푸에르토 데세아도는 특정 함대 거점으로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 금년 시즌 성과는 단순 어획량보다 자원 상태, 규제 준수, 물류 안정성, 재정·상업 역량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평가됨.

- 배타적 경제수역 EZZ 내에서는 남위 44도에서 52도까지 오징어 조업 허용
 - 오징어 조업은 오는 1월 7일부터 북위 44도 이남 해역에서 허용되며, 2026년 시즌에 북위 49도 이남 해역에서 조업했던 선박에 우선권이 주어짐. 현재까지 이번 시즌은 다소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음

- 불법 어업에 반대하는 아르헨티나, 200마일 지점에서 외국 선박들의 불법행위에 맞서 일본의 지원을 추가
 - 일본은 IUU 어업 대응을 위해 아르헨티나 등 남미 4개국에 약 3억 엔 규모의 해상 감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드론·순찰정·영상 분석 시스템 지원을 통해 EEZ 감시와 외국 선박 조기 탐지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이는 국제 규제가 취약한 공해상에서 외국 선단 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 아르헨티나의 경우 해양청을 중심으로 감시·집행 역량이 보완될 전망이나, 기술 자산과 단속 권한 간 제도적 조율 필요성도 제기됨. 이번 지원은 2026년 오징어 시즌을 앞둔 감시 강화 조치와 연계되어 해양 주권 및 수산자원 보호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됨.

- 2026년 오징어 낚시 시즌은 20척의 채낚이 선박이 출항하면서 남위 49도 남쪽에서 시작
 -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라플라타 등지에서 출항한 20척의 지거선이 남위 49도 이남 해역을 향해 일렉스 오징어 조업을 시작했으며, 추가로 약 25척이 동일 목적지로 합류할 예정임. 한편 바히아 블랑카, 마드린, 네코체아, 푸에르토 데세아두에서는 현재까지 추가 출항은 없는 상황임.

- 가오리/홍어 쿼터 도입
 - 해양전선 합동기술위원회는 2026년 공동 어업구역 심해 가오리 어업의 총허용어획량(TAC)을 4,800톤으로 확정하고, 이 중 4,300톤은

상업 어업, 500톤은 보호구역으로 배정함.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2,800톤과 1,500톤을 배분하고, 상반기 미소진 물량은 하반기로 이월 가능하도록 설정함.

- 또한 각 반기 할당량의 80%에 도달할 경우 조기 소진 방지를 위해 상륙량을 총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관리 장치를 도입했으며,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자원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도모함.

◆ 2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2. 10	EPSOL YPF (국영기업)	1.24 USD/L	MGO	2월달 안으로 연료의 종류에 따라 3~4%인상 예정

나.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 회사(기관)	지원(협의) 내용
2026. 01. 23. 유선활동	우루과이 한국대사관	- SEJONG (IMO8607358)선박이 허가장이 나오는 시점에 FA041 해구에 도착하려고 저속항해를 하여 이를 오인한 아르헨티나 해경에 타깃이 되어 이를 소명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중국해적선에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해역 200마일 이내에서 불법조업을 한 외국 선박(중국 국적 바오핑호)을 적발하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음. 이번 조치는 해안경비대 감시 시스템과 해상 교통관리센터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방수산업과 국가 주권 수호 원칙에 따라 엄격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약 15억 페소 수준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술 발전으로 감시망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해역 침범 행위를 시도하지 말 것을 경고했음.

□ 채낚이 시즌 초 평균 38톤 수확

- 2026년 오징어 채낚이 어업 시즌이 개장된 지 3주도 되지 않아 초기 조업 성과가 공개됐으며, INIDEP 두족류 프로그램 책임자는 이번 시즌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국가 어장에서 운항이 승인된 82척 중 74척의 지거선이 실제 조업에 참여했으며, 1월 22일까지 약 25,000톤이 어획되고 하루 평균 38톤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됐음.

라. 기타 동향

□ 생선을 먹지 않는 수산국가,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는 새우·대구·오징어 등 수산물 생산이 활발해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 소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2022년 기준 1인당 어패류 소비량은 7.1kg으로 세계 평균과 인근 국가보다 크게 낮으며, 쇠고기 중심 식문화와 수산물 정보 부족, 내륙 지역 유통 인프라 한계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내수 확대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생산·소비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 자원을 식단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대서양 연안의 변칙적인 파도(쓰나미)

- 아르헨티나 대서양 연안에서 갑작스러운 파도 활동이 발생해 실종자 1명, 심장 경색 환자 1명, 부상자 30명 이상이 발생함. 약 1.5m 규모의 파도가 갑작스럽게 빠른 속도로 밀려와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으며, 아르헨티나 해안에서는 드문 현상으로 평가됨.

◆ 3월 보고서

가. 유류 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3. 4.	EPSOL YPF (국영기업)	1.26 USD/L	MGO	

나. 해양·수산업 동향

- FAO, 식품사기 및 그 결과에 대한 의제 제기
 - FAO와 IAEA는 전 세계 수산물 거래의 최대 20%가 어종 대체, 허위 라벨링,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식품 사기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라고 경고함. 이러한 행위는 시장 투명성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대체 수산물의 약 58%가 독소 위험, 미표시 성분, 실제와 다른 어종 판매 등 소비자 안전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고서는 종·학명 표기 의무화, 공급망 추적성 강화, 유전자·동위원소 분석 등 과학적 검증 기술 활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오징어가 조업 경쟁
 - 아르헨티나 해역에서 오징어 어획량이 약 한 달 만에 약 7만5천 톤을 기록하며 자원 생산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은 오징어 전용 어선단이 어획한 것으로 확인됨.
 - 한편 EEZ 경계 해역에는 외국 어선 약 500척과 자국 어선 100척 이상이 활동하고 있어 아르헨티나 해군이 200해리 인근 해역의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대왕오징어
 - 남태평양 지역어업관리기구(SPRFMO)는 2026년 3월 파나마에서 회의를 개최해 공해상 대왕오징어(*Dosidicus gigas*) 어업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최근 중국 원양어선단의 활동 확대와 함께

국제 해역에서 규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칠레·페루·에콰도르 등 연안국과 원양어선단 간 조업 균형 및 자원 지속가능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 특히 에콰도르는 공해상 대왕오징어 어업에 대해 예방적 연간 어획량 할당제 도입을 제안했으며, 이는 자원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무분별한 조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임. 페루 소규모 어업계도 공해상 규제 부족으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번 회의는 남태평양 대왕오징어 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의가 될 것으로 평가됨.

□ 2026년 어업활동

- 2026년 1월 아르헨티나 어업 생산은 약 92,853톤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으며, 수출도 약 1억7천만 달러로 60% 이상 증가함. 특히 오징어 어획량이 약 49,000톤으로 약 200% 증가하며 생산 확대를 주도했음.
- 반면 새우 생산은 소폭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약 1억59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구 어획량도 약 25% 증가해 전반적으로 수산업 회복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

다. 기타사항

- 한국국적 어선의 선원, 남대서양에서 건강 이상 보여 아르헨티나 해군에 의해 이송
 - 한국 국적 냉동 트롤 어선 SAE IN LEADER호에서 항해 중이던 선원 1명이 남대서양 EEZ 외 해역에서 뇌졸중 의심 증상을 보여 아르헨티나 해군 헬기에 의해 긴급 의료 이송되었음. 환자는 코모도로 리바다비아 공항으로 후송된 뒤 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사고는 푸에르토 데세아도에서 약 207해리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음.

5. 인도네시아

◆ 1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1. 7.	Pertamina	1 USD/L	디젤유 (MDF)	- 국내가격 인상되었지만 환율로 인해 달리는 제자리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1Kg)	단가 (USD)	기타
고등어	Round	1.5~3.0	
	Fillet	8.4~10.6	
참치	Round	3.5~5.0	Round로 유통이 원활해서 Fillet과 큰 가격 차이 없음
	Fillet	3.5~5.5	
틸라피아	Round	2.0~3.0	
	Fillet	9.0~9.4	
오징어	Fresh Round	3.8~4.5	
	Frozen Round	3.5~4.2	
새우	Whole	3.8~7.5	새우는 사이즈별 가격차가 큼
	Peeled	7.0~12.5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인도네시아-일본 협력, 어민 역량 강화 지원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동티모르 연안어업 역량 강화를 위해 테갈 수산교육·지도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일본·동티모르 3국 협력과 JICA 지원으로 추진된 인적자원 개발 사업임. 교육은 어획물 유통·품질관리, 어구 제작, 선박 안전 및 엔진 유지보수, 어획물 처리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고 현장 견학이 병행되었으며, 참가자에게는 평가 후 수료증이 발급되어 향후 동티모르 어업 기술 및 해상 안전 기준 향상에 활용될 예정임.

□ 재난피해지역 어업허가 우선처리

- 2025년 말 인도네시아 아체·북수마트라·서수마트라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주거지와 항만시설이 피해를 입고 어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어민 생계 회복이 어려워짐. 이에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어업허가(SIPD)와 어획물 운반선 허가(SIKPI) 처리 우선 조치와 장비 지원, 온라인 행정 시스템 활용을 통해 어업 재개와 지역 수산경제 회복을 지원함.

□ 2025년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결산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업 천연자원 분야 비조세 국가 수입(PNBP)이 약 1조1,900억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데이터 관리 개선과 징수 절차 정비가 주요 요인으로 평가됨. 해당 재원은 어민 지원, 어업 허가 서비스 개선, 어항 인프라 정비, 어획 데이터 수집 강화 등에 활용되고 있음.
- 또한 2025년 포획어업 생산량은 약 785만 톤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어민 교환지수(NTP)도 개선되는 등 어민 소득 여건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어촌마을 조성, 어업 장비·엔진 보급, 어민 역량 강화와 어항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

라. 일반, 투자 동향

□ 인도네시아 36개주 2026년 최저임금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6년 최저임금(UMP)을 확정해 주별로 차등 적용했으며, 이는 수산업·어업·선박 운영 등 해안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카르타는 약 573만 루피아로 가장 높았고 서부자바와 동부자바는 약 231만~244만 루피아 수준으로 낮아 연안 어업 종사자의 임금 여건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부 지역은 5~9% 수준의 인상률이 적용된 반면 중부파푸아는 동결되어 지역 간 격차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임금 조정은 인도네시아에서 수산·항만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 선원 해외송출인력

- 인도네시아 선원 해외송출인력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음. 인도네시아의 자료 업데이트는 상당히 느린편임. 현재 나온 자료는 2024년 상반기 까지이며 새로 나오는 자료는 업데이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첨부 하겠음.

◆ 2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6. 2. 5.	Pertamina	0.99 USD/L	디젤유(MDF)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1Kg)	단가 (USD)	기타
고등어	Round	1.5~3.0	연말연시 성수기 이후 모든 어종가격 안정적 하향세 유지
	Fillet	8.0~10.0	
참치	Round	3.5~5.0	
	Fillet	3.5~5.5	
틸라피아	Round	2.0~3.5	
	Fillet	8.5~9.5	
오징어	Fresh Round	3.0~4.5	
	Frozen Round	3.0~4.0	
새우	Whole	3.5~7.2	
	Peeled	7.0~13.0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인도네시아, ISO 인증으로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 인도네시아는 전국 46개 기술실행단위(UPT)가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하면서 수산물 품질 관리, 시험, 수출 인증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강화함. 이를 통해 SKP, SMKHP, HACCP 인증과 품질 시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되어 수출 안정성과 소비자 안전이 동시에 제고됨.

- 이러한 품질 관리 강화에 따라 인도네시아 수산물은 2025년 기준 147개국으로 수출이 확대되었고, 2025년 1~10월 수출액도 전년 대비 5.1% 증가하는 성과를 보임. 이번 ISO 인증은 글로벌 시장에서 수산물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 일본 수출 참치·가다랑어에 관세 0% 적용 지원 확대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IJEPA 개정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는 참치·가다랑어 제품에 대해 관세 0%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함. 기존 최대 9.6% 관세가 단계적으로 면제되면서 일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출 여건이 개선됨.
- KKP는 HS 코드 등록, 품질·위생 인증, 추적성 서류 제출 및 심사를 통해 업체를 승인하고 일본 농림수산성에 등록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참치류의 일본 시장 점유율 확대와 안정적인 수출 기반 확보가 기대됨.

□ 국가대표 어촌마을 조성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

- 인도네시아 정부의 국가대표 어촌마을(KNMP) 조성 사업은 전국 65개 해안 지역에서 추진되며 약 1만7,55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연안 경제 활성화 성과를 보이고 있음. 이 사업은 부두·냉동창고·제빙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함께 수산물 물류·가공·유통 산업 확대를 통해 지역 일자리와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정부는 1단계 65개 지역에 이어 35개 지역을 추가하는 2단계 사업과 장기적으로 최대 1,000개 지역까지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핵심 정책으로 추진 중임.

◆ 3월 보고서

가.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2026. 3. 6.	Pertamina	Rp15,450(\$0.91) per Liter	선박유(MFO)
2026. 3. 6.	Pertamina	Rp10,000(\$0.60) per Liter	차량용 일반휘발유

나.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1Kg)	단가 (USD)	기타
고등어	Round	2.0~3.0	내수용 수요증가로 생물가격 인상
	Fillet	8.0~10.0	
참치	Round	2.5~4.0	
	Fillet	8.5~9.5	
틸라피아	Round	4.0~5.0	
	Fillet	8.5~9.5	
오징어	Fresh Round	4.0~4.5	
	Frozen Round	3.0~4.0	
새우	Whole	3.5~7.2	
	Peeled	7.0~13.0	

다. 해양·수산업 동향

- 숨겨진 제도(諸島)의 핵심 생물종, 그 경이로움이 밝혀지다
 - 인도네시아 말루쿠 남서부 로망섬·다메르섬 해역에서 실시된 과학 탐사 결과, 해당 지역이 반다해와 인도양의 영양 공급을 받는 회복력 높은 해양 생태계이자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주요 이동 통로로 확인됨. 특히 대왕고래, 귀상어, 바다거북, 듀공 등 24종 보호종이 확인됐으며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듀공 서식지가 발견되는 등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됨.
 - 해초 피복률 50% 이상과 산호 피복률 최대 51.4% 등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폭약·독극물 어업, 거북 밀렵, 해양 쓰레기 등 위협도 지속되고 있음. 정부와 지역사회는 전통 자원관리 제도인

‘사시(Sasi)’ 를 기반으로 공동 감시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를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3개월간 미국에 ‘세슘 무검출’ 인증 새우 1,852개 컨테이너 수출
 - 인도네시아는 세슘-137(Cs-137) 무검출 인증을 통해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6년 2월 7일까지 총 1,852개 컨테이너 규모의 새우를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 중 1,027개는 미국 주요 항만에 도착했고 825개는 운송 중임. 수출 물량은 약 155,999톤, 약 5조3천억 루피아 규모로 자바와 람퐁 지역 가공업체에서 생산됨.
 - 모든 컨테이너는 Cs-137 검사 후 수산물 품질·안전 인증서(SMKHP)를 발급받아 미국 CBP와 FDA의 수입 기준을 충족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인증 체계를 통해 미국 시장 진입을 강화하고 향후 글로벌 수산물 수출 확대 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평가됨.

- 라마단 기간 중 유통 수산물 품질 보장
 - 인도네시아 정부는 라마단과 2026년 이슬 피트리를 앞두고 수산물 품질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전국 46개 기술실행단위(UPT)를 중심으로 양식장과 어선의 CBIB 이행 여부, 가공업체의 HACCP 및 GMP/SSOP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과 함께 대장균·살모넬라·리스테리아 등 병원성 미생물, 히스타민·포르말린·중금속·독소 등에 대한 실험실 검사도 병행하고 있음.

라. 기타사항

- 인도네시아 라마단
 - 인도네시아는 지금 라마단 금식기간임. 작년에 이어 라마단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겠음.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국가로, 라마단은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임. 라마단은 이슬람력 9번째 달로 한 달 동안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의 금식을 마무리함. 라마단 종료 후에는 최대 명절인 이들 피트리가 이어지며 귀성, 가족 모임, 선물 준비 등으로 전국적인 이동과 소비가 크게 증가함.

- 라마단 기간에는 낮 동안 금식이 이루어지지만 저녁 식사와 공동체 모임, 명절 준비로 인해 식품 소비량은 평소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특히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식품 유통량이 증가하고 위생·신선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라마단 이전부터 양식장과 어선 관리, 수산물 가공업체 위생 기준 점검, 실험실 검사를 통한 세균 오염 및 유해 물질 여부 확인 등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금식 기간과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식품 안전 관리 조치로 시행되고 있음.

6. 가나

◆ 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8	2025-12-17/ 2025-12-27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Master	2025-12-30/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Commander	2025-12-11/ 2025-12-15	하역	Takoradi	조업중
Panofi	Queen	2025-12-11/ 2025-12-15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5-12-24/ 2025-12-28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5-12-02/ 2025-12-06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5-12-05/ 2025-12-09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Fore runner	2025-12-17/ 2025-12-27	하역	Abidjan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12-09	하역 및 계류	Tema	계류중
DH	Iris J	2025-11-15/ 2024-11-20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Q	2025-12-11/ 2025-12-15	하역	Tema	조업중
Agnes Park	Agnes 1	2025-12-03/ 2025-12-07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5-11-24/ 2025-12-02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Siete	2025-11-24/ 2025-12-08	하역	Abidjan	조업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5. 12. 31	GHANA OIL(GOIL)	0.86 USD/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1,850 / Mt	
Yellowfin tuna	10kg under	USD 1,530 / Mt	
Skip jack tuna	3.4kg up	USD 1,400 / Mt	
Skip jack tuna	1.8kg up	USD 1,350 / Mt	
Skip jack tuna	1.5kg up	USD 1,200 / Mt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050 / Mt	

라. 대외 활동 내역

일자/장소	지원(협의) 회사(기관)	지원(협의) 내용
2025.12.16./재 가나 한국 대사관	재 가나 한인 기업인	가나의 경제동향 공유 및 25년도 기업인 간담회

마. 해양·수산업 동향

- 부통령, 수산부문 리셋 점점... 2026 식량주권 확보 위한 ‘어업 재도약’ 선언
 - 가나 정부는 국가 리셋 아젠다에 따라 수산 부문 개혁을 추진하며 연안배타구역(IEZ)을 12해리로 확대해 소규모 어민 보호를 강화하고, 2025년 수산·양식법 제정과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으로 제도 기반을 정비함. 또한 해양보호구역 지정, 단속 강화, 연료 유통 개선, 수산교육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산업 회복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2026년을 ‘어업 재도약의 해’로 선언함
- CaFGOAG, 2026 예산 심의에 어업인 역사적 참여 환영
 - 가나 카누·어구 소유자 협회(CaFGOAG)는 2026년 예산 심의에

소규모 연안어업 종사자들이 처음 공식 초청된 것을 포용적 수산 거버넌스 전환의 상징으로 평가함. 예산안에는 불법어업 단속 강화, 어획 후 처리·어시장 투자, 공동관리 구조 강화, 프리믹스 연료 디지털화, 어업 투입재 지원, 아노마보 수산대학 운영화 등 소규모 어업 지원 정책이 포함됐으며, 협회는 어업인 참여 확대와 지속 가능한 어업 실천을 통해 해양자원 보존과 산업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국회, 2026년도 수산·양식 예산 4억 2,800만 세디 승인

- 가나 국회는 2026년 수산·양식개발부(MoFAD) 예산으로 총 GH¢428백만 세디를 승인했으며, 과학 기반 자원관리 강화와 해양 보호구역 지정, IUU 어업 단속 확대 등을 통해 해양·내수면 자원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함. 특히 약 GH¢287.9백만 규모의 자본지출을 통해 연구조사선·어업단속선·감시장비 도입과 산업 현대화 지원 예정이며, 치어 생산 확대와 어선 등록, 단속 인력 양성 등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수산·양식 산업의 회복력과 장기적 성장 기반 강화 기대됨.

◆ 2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8	2025-12-17 / 2025-12-27	하역 및 수리	Tema	조업중
Panofi	Master	2025-12-30 / 2026-01-03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6-01-16 / 2026-01-20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Queen	2025-01-12 / 2025-01-16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6-01-30 /	전재	Tema	하역중
Panofi	Path finder	2026-01-06 / 2026-01-10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6-01-12 / 2026-01-16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6-01-14 / 2026-01-18	전재	Abijdan	조업중
DH	Sea plus 87	2025-12-09 /	하역	Tema	계선중
DH	Iris J	2026-01-08 / 2026-01-20	하역 및 수리	Tema	하역중
DH	Iris Q	2026-01-16 / 2026-01-23	하역	Tema	조업중
Agnes Park	Agnes 1	2026-01-09 / 2026-01-13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6-01-07 / 2026-01-12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Siete	2026-01-07 / 2026-01-12	하역	Abijdan	조업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1. 31	GOIL	0.88 USD / 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2,250/MT	라운드
Yellow fin tuna	10kg under	USD 1,550/MT	라운드
Skip jack tuna	3.5kg up	USD 1,400/MT	라운드
Skip jack tuna	1.8kg up	USD 1,350/MT	라운드
Skip jack tuna	1.8kg under	USD 1,200/MT	라운드
Skip jack tuna	1.5kg under	USD 1,050/MT	라운드

라. 해양·수산업 동향

- 가나 Trawl어업 부문, 참치 채낚기 어업에 이어 붕괴 위기 직면
 - 가나수산협회(NAFAG)는 2025년 「수산·양식법(Act 1126)」 해석으로 인접수역(IEZ)이 12해리로 확대 적용되며 산업 트롤어선의 영해 내 조업이 사실상 금지돼 산업어업이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함. 약 45척의 트롤어선이 조업을 중단했고 EU 제재로 참치 채낚기 어선도 대부분 멈추면서 산업어업 전반의 위축 우려가 제기됨.

- 중국수산과학원과 협력, 가나 수산·양식업 발전 박차
 - 가나 수산·양식부는 중국수산과학원(CAFS)과의 고위급 회담을 통해 양식업 확대, 수산자원 관리, 어병 방역, 부가가치 제고 및 인력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기반 협력 의지를 밝힘. 해당 협력은 가나 정부의 ‘24시간 경제’ 및 수출가속화 정책과 연계된 전략으로, 내수면·연안 가두리 양식 확대와 티라피아 외 종다양화, 공동 자원조사, IUU 어업 대응, 기후변화 대응, 수산통계 개선 등 어획·양식 전반의 협력 방안이 논의됨.
 - 또한 가나는 어병 감시와 생물안전 체계의 취약성을 공유했고 CAFS는 국가 생물안전 프레임워크 구축, 실험실 역량 강화, 교육·인력양성 지원 의지를 표명함. 가공시설, 냉동·저온유통망, 사료 생산, 양식 시범단지, 수산대학 2단계 개발 등 가치사슬 협력도 함께 검토됐으며, 향후 양해각서 체결과 공동연구 발굴, 기술사절단 파견을 추진하고 2026년 2월까지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확인함.

- 불법어업, 불타 연안서 급증…수산자원 고갈 우려
 - 가나 불타 지역 주요 어촌에서 드라코닝·화학어업 등 불법어업이 급증하며 독성 화학물질 사용 사례까지 보고돼 어자원 고갈과 환경·생계 위협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 어촌계 일부와 외부 어선의 결탁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역 어민단체는 단속 강화와 공동 대응,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역 수산업 붕괴 가능성을 경고함.

◆ 3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Afko	Afko 805	2026-02-09 / 2026-02-17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Master	2026-02-15 / 2026-02-17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Commander	2026-02-27	하역	Tema	하역중
Panofi	Queen	2026-02-20 / 2026-02-23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Discoverer	2026-01-30 / 2026-02-01	전재	Tema	조업중
Panofi	Path finder	2026-02-12 / 2026-02-15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Grace	2026-02-22 / 2026-02-24	하역	Tema	조업중
Panofi	Fore runner	2026-02-18 / 2026-02-20	하역	Tema	조업중
DH	Sea plus 87	2026-02-04 / 2026-02-06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J	2026-02-16 / 2026-02-20	하역	Tema	조업중
DH	Iris Q	2026-02-17 / 2026-02-22	하역	Tema	조업중
Agnese Park	Agnes 1	2026-02-16 / 2026-02-21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Uno	2026-02-13 / 2026-02-17	하역	Tema	조업중
Dicha Venture	Dicha Siete	2026-02-16 / 2026-02-19	하역	Abijdan	조업중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2. 28	GOIL	0.896 USD/L	MGO	양상급유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ellowfin tuna	10kg up	USD 1,850/MT	Round 제품 기준
Yellow fin tuna	10kg under	1,550	
Skip jack tuna	3.5kg up	1,400	
Skip jack tuna	1.8kg up	1,350	
Skip jack tuna	1.8kg under	1,200	
Skip jack tuna	1.5kg under	1,050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수산부, 산업 트롤어업자와 협의 - EU 레드카드 가능성 경고

- 가나 수산·양식개발부 장관은 IUU 어업 대응이 미흡할 경우 EU의 ‘옐로카드’가 ‘레드카드’로 격상돼 EU 시장 수출이 전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수익 손실과 고용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함. 가나는 모니터링·통제·감시(MCS) 체계의 취약성으로 재차 옐로카드를 받은 상태이며, 2025년 「수산·양식법(Act 1146)」 시행과 IEZ 12해리 확대를 통해 규제 준수와 자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한편 산업계는 30일 조업 제한과 12해리 외곽 조치, 어망 규정 등이 과학적 검증 없이 시행돼 운영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며 조업 일수 확대와 장비 규정 재검토를 요구함. 국회와 업계는 수산업의 경제·식량안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규제 집행의 실효성과 산업생계 보호 간 균형 필요성을 제기함.

□ 정부, 프리믹스 연료 기금 회수 및 개혁 착수

- 가나 정부는 커뮤니티개발기금(CDF)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재정

불투명과 거버넌스 위반을 바로잡기 위해 프리믹스 연료 부문 전반에 대한 회수 및 개혁 캠페인을 착수함. 정부는 전국 단위 CDF 도입과 책임성 프레임워크 시행, 자금관리 의무보고제 강화, 프리믹스 자동화 시스템 연계, 재정관리 교육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함. 이를 통해 공적 자금 회수와 제도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연안 공동체 개발과 어민 보호를 위한 보다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가나, 첫 해양보호구역(MPA) 다음 달 지정

- 가나는 오는 3월 서부 케이프 쓰리 포인트에 국가 최초의 해양보호 구역(MPA)을 공식 지정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20년간 급격히 감소한 어자원 회복과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 전략의 일환임. 해당 MPA는 해양오염 관리, 환경 데이터 기반 대응, 이해관계자 인식 제고, 연안 공동체 리스크 평가 등을 목표로 하며, 향후 불타 지역을 포함한 전 연안으로 단계적 확대가 계획됨.
- 이번 조치는 영국 OCPP와 국내 NGO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내각 승인에 따라 어자원 회복과 생물다양성 보호, 연안 생계 안정화를 핵심 목표로 함. 지정 해역은 주요 어종 산란장과 해양포유류 회유 경로를 포함하고 있어 가나의 블루 이코노미 전략과 글로벌 30x30 목표 이행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됨.

7. 세네갈

◆ 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WESTERN KIM	2025-11-26 / 2025-12-0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XIXILI	2025-11-27 / 2025-12-0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AP ATLANTIQUE	2025-11-30 / 2025-12-0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NO.211 DONGWON	2025-12-09 / 2025-12-13	수리 및 어기교대	다카르항	
SENEGAL	ORIENTAL KMI	2025-12-10 / 2025-12-1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5-12-16 / 2025-12-21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TERN KIM	2025-12-31/ 2026-01-04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1. 6	다카르항	0.61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550/MT	
YF	3.4-10kg	\$1,450/MT	
YF	1.8-3.4kg	\$1,350/MT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5-1.8kg	\$1,200/MT	
YF	1.5kg under	\$1,000/MT	
SJ	3.4kg up	\$1,400/MT	
SJ	1.8-3.4kg	\$1,350/MT	
SJ	1.5-1.8kg	\$1,200/MT	
SJ	1.5kg under	\$1,000/MT	
BE	10kg up	\$1,200/MT	
BE	3.4-10kg	\$1,200/MT	
BE	1.8-3.4kg	\$1,200/MT	
BE	1.5-1.8kg	\$1,050/MT	
BE	1.5kg under	\$850/MT	
YF/SJ/BE	1.5kg under	XOF 650/Kg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카사망스 해양 개발 : 세네갈과 네덜란드, 협정 체결

-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와 네덜란드는 카사망스 지역 해양·수로 개발을 위한 협력 계획에 서명했으며, 항로 준설, 현대식 어항 건설, 해양 직업교육센터 설립 등을 통해 해상 인프라와 물류 연결성 강화를 추진함. 네덜란드는 항만·해양 기술 지원과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은 세네갈 Vision Senegal 2050과 국가 개발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로 평가됨.

□ 생루이에 인공 암초 조성

- 세네갈 북부 생루 해안에 해양 생태계 회복과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해 대규모 인공 암초가 설치됨. 해당 사업은 지역 당국·연구자·어민 의견을 반영해 추진되었으며, 인공 암초 관리와 지속가능한

어업 교육을 병행해 장기적인 해양 생물 다양성 회복과 지역 어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광구 가스 개발 프로젝트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됨.

□ 2026년 사업 계획

- 세네갈 수산해양경제부는 2026~2030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축소형 2026년 예산을 채택함. 핵심 과제로 IUU 어업 근절을 설정하고 허가 선박 등록부 공개, 어민 대상 교육 확대, 산업어선 AIS·VMS 24시간 추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과잉어획과 어분 공장의 환경·자원 영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진행하고 모리타니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와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선박 궤적 분석의 정례화 등 감시 체계의 운영 측면에서는 추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2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XIXILI	2026-01-05 / 2026-01-12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IENTAL KIM	2026-01-05 / 2026-02-10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AP ATALNTIQUE	2026-01-14 / 2026-01-17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6-01-19 / 2026-01-23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TERN KIM	2026-01-27 / 2026-02-01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2. 3.	다카르항	0.65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kg up	\$1,550/MT	
YF	3.4-10kg	\$1,450/MT	
YF	1.8-3.4kg	\$1,350/MT	
YF	1.5-1.8kg	\$1,200/MT	
YF	1.5kg under	\$1,000/MT	
SJ	3.4kg up	\$1,400/MT	
SJ	1.8-3.4kg	\$1,350/MT	
SJ	1.5-1.8kg	\$1,200/MT	
SJ	1.5kg under	\$1,000/MT	
BE	10kg up	\$1,200/MT	
BE	3.4-10kg	\$1,200/MT	
BE	1.8-3.4kg	\$1,200/MT	
BE	1.5-1.8kg	\$1,050/MT	
BE	1.5kg under	\$850/MT	
YF/SJ/BE	1.5kg under	XOF 650/kg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사고 / 어업법 개정 추진

- 2026년 1월 기니비사우 해역에서 세네갈 어선 10척이 무면허 조업과 단일사슬 그물 사용 등 불법 어업 혐의로 나포됨. 이 사건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반복되는 해상 경계 위반과 자원 보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원 고갈과 과잉 조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세네갈 정부는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와 해양 자원 보호 강화를 위해 어업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향후 면허 제도, 단속·

감시, 어획쿼터, 추적성 체계 등 법적 기준 강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조업권 이슈

- UNAPAS(전국 수산업자 단체)는 산업어선과 소규모 어업 간 조업권 갈등을 제기하며, 정부에 산업용 대형 선박의 조업을 연안 12해리 밖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함. 이는 대형 선박의 접근으로 발생하는 어망 파손과 자원 경쟁 심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 소규모 어업의 조업 안전과 생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기됨.

□ 신규 인프라 구축 - Thies 중앙 수산시장 개장

- 2026년 1월 24일 세네갈 수산해양부 장관 주재로 Thies 지역에 연간 8,000톤 처리 능력을 갖춘 신형 중앙 수산시장이 개장됨. 냉장·냉동·품질관리 시설을 갖춘 현대적 유통 인프라로 사후 손실 감소와 수산 가치사슬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해당 시장은 Vision Senegal 2050 및 2025~2029 수산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소규모 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과 지역 농수산업 구조 개선을 목표로 추진됨.

마. 일반·투자 동향

□ 주요 국책 사업 발표 및 3대 공기업 우선 희생 대상 지목

- 송코 총리는 2026년 1월 21일 각료회의에서 ‘2026~2028 특별 투자 및 금융 계획(PSIF)’을 발표하며 Tambacounda 건화물 항구, 대규모 용수 이송 사업, 농산업 클러스터 조성, 가스 배관망 구축, Ndayane·Sendou 항구 건설 등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을 제시함.
- 또한 세네갈 경제의 핵심이지만 위기를 겪고 있는 국영 유지공사, 국영 항공·공항 부문, 국영 우체국 등 주요 공기업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함.

□ EU, 해상 범죄 대응 위해 세네갈 해군에 고속정 공여

- 유럽 연합은 2026년 1월 15일 '서아프리카 통합 해상 보안 지원 프로젝트(SWAIMS)'의 일환으로 해상 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고속정 2척 및 관련 장비를 전달함.

◆ 3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Senegal	ORIENTAL KIM	2026-02-05 / 2026-02-10	하역	다카르항	
Senegal	XIXILI	2026-02-07 / 2026-02-15	하역	다카르항	
Senegal	GRANADA	2026-02-12 / 2026-02-16	하역	다카르항	
Senegal	WESTERN KIM	2026-02-18 / 2026-02-23	하역	다카르항	
Senegal	CAP ATLANTIQUE	2026-02-20 / 2026-02-23	하역	다카르항	
Senegal	ORIENTAL KIM	2026-02-22 / 2026-02-25	하역	다카르항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2. 27.	다카르항	0.62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YF	10 Kg Up	\$1,550/MT	
YF	3.4~10kg	\$1,450/MT	
YF	1.8~3.4kg	\$1,350/MT	

YF	1.5~1.8kg	\$1,200/MT	
YF	1.5kg under	\$1,000/MT	
SJ	3.4kg up	\$1,400/MT	
SJ	1.8~3.4kg	\$1,350/MT	
SJ	1.5~1.8kg	\$1,200/MT	
SJ	1.5kg under	\$1,000/MT	
BE	10kg up	\$1,200/MT	
BE	3.4~10kg	\$1,200/MT	
BE	1.8~3.4kg	\$1,200/MT	
BE	1.5~1.8kg	\$1,050/MT	
BE	1.5kg under	\$350/MT	
YF/SJ/BE	1.5kg under	XOF 650/Kg	

라. 해양·수산업 동향

□ 서아프리카 연합 어업 감시작전 “ESPADON “

- 2026년 2월 9일부터 22일까지 서아프리카 7개국 공동 어업감시기구인 CSRP가 ESPADON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작전 결과 8척의 어선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혐의로 나포 되었으며, 이들 선박은 해역관리 규정 위반, 신고 누락, 허가 만료 등의 이유로 적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나포가 이루어진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세네갈 - 감비아 간 어민 지원 및 해양협력 강화

- 2월 15일, 세네갈 어업 해양경제부 장관이 감비아 수도 BANJUL을 방문해 현지 세네갈 어민들에게 안전장비 및 어업 장비를 전달했

습니다. 두 나라 간 해양 협력 강화와 어민 보호를 위한 실무적 조치로 평가되며 어업 관련 협력관계 확대 의지를 표명합니다.

□ EU - 세네갈 어업협정 관련

- 기존 EU - 세네갈 어업협정은 2025년 초 만료된 뒤 협상 없이 종료됐으나, 2월 중순 EU 대외행동 서비스 책임자는 인터뷰를 통해 세네갈과 EU간 협력관계는 지속적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협정 종료 이후에도 어업 분야에서의 제도적, 정책적 대화는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마. 일반 · 투자 동향

□ 세네갈 소형 어선용 FLOATING DOCK ODA 사업 제안

- 세네갈 수산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500톤 이하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FLOATING DOCK (부유식 선박 수리시설) 설치 ODA 사업을 제안합니다.
- 현재 세네갈에는 150~200톤급 / 150척 규모의 어선이 운항 중이나, 선박을 상가 수리하거나 정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많은 선주들이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AKAR NAVE 와 같은 대형 DOCK 시설이 존재하지만, 대형 선박 위주의 시설로 소형, 중형 어선이 이용하기에는 비용 및 접근성 측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DAKAR 등 주요 어항 및 향후 개발 예정 항만 지역에 FLOATING DOCK을 구축하여 어선 정비, 수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한 어선 운영 환경 조성이 필요 합니다. 이는 세네갈 어선을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시급한 수산 인프라 사업으로, ODA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경우 세네갈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 뉴질랜드

◆ 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기타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5-12-22/ 2025-12-23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5-11-06/ 2025-12-11	하가 후 수리	DUNEDIN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6-01-05/ 2026-01-06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LTD	FORTUNNI	2026-01-06/ 2026-01-07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6-01-07/ 2026-01-08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HAPPINUI	2025-12-02/	하가 후 수리	DUNEDI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1.06	JAICO LTD	0.84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기타
BARRACOUTA	2L/L/M/S	1950/1900/1750/160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뉴질랜드 어류 자원에 대한 심층 보고서 발표

- 뉴질랜드 정부는 최신 수산 자원 평가 결과, 과학적으로 분석된

149개 어종 중 약 87%가 지속가능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함. 정부는 쿼터 관리 제도(QMS)를 중심으로 자원 관리 성과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관리가 필요한 일부 어종에 대해서도 회복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 뉴질랜드 수산업은 약 9,000명의 고용과 연간 약 15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되며, 정부는 향후 과학 기반 수산 관리 개혁을 통해 자원 관리의 속도와 효과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독에서 진통제로 - 뉴질랜드 과학자들, 차세대 진통제 개발 위해 독성 미세조류 배양

- 뉴질랜드 연구진은 바다의 독성 미세조류가 생성하는 신경독 성분을 활용해 차세대 진통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해당 독성 화합물은 신경계에 정밀하게 작용하는 특성이 있어 구조를 변형해 통증 신호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약물로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며, 미세조류는 해양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된 환경에서 배양하고 있음.
- 연구의 목표는 중독성과 부작용 문제가 큰 기존 오피오이드 진통제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저중독성 진통제를 개발하는 것임. 아직 임상 상용화 단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성공할 경우 만성 통증 치료 확대와 글로벌 오피오이드 위기 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연구로 평가됨.

◆ 2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DW NEW ZEALAND LTD.	DONG WON530	2026-01-13/ 2026-01-23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519	2026-01-25/ 2026-01-26	유류 및 하역	TIMARU

JAICO	FORTUNNI	2026-01-26/ 2026-01-27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6-01-25/ 2026-01-26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FORTUNNI	2026-01-13/ 2026-01-14	인도네시아 선원 사망사고	DUNEDI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2.03	Z	0.899 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SQUID (GREEN)	3L/2L/L/M/2M/S/2S	4250/4950/5000/5050/5050/4650/3400 USD/MT
BARRACOUTA (DRE)	2L/L/M/S	2050/1950/185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뉴질랜드 바다, 지구 평균보다 훨씬 빠르게 뜨거워지는 중
 - 뉴질랜드 해수면 온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약 34%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Murihiku 사우스랜드 지역은 최근 10년간 약 0.4° C 상승해 가장 빠른 해양 온난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온난화는 해양 생물 이동 변화와 생존율 감소, 생태계 교란을 초래해 수산업과 식량 공급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로 지적됨.
 - 사우스랜드는 약 2억7,200만 달러 규모의 양식·어업 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이어서 해양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고용과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전문가들은 엘니뇨·라니냐 등 자연 변동뿐 아니라 온실가스 증가가 해양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함.
- 뉴질랜드, 태평양 이주 노동자 프로그램 조용히 폐기... 고비용 계절 비자로 대체
 - 뉴질랜드 정부가 태평양 노동자를 위한 전용 이주 경로를 공식

발표 없이 폐기하고, 이를 비용과 요건이 더 높은 계절 비자 체계로 대체한 사실이 확인됨. 해당 경로는 육류·해산물 가공 등 인력 의존 산업의 안정적 노동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정책 변경으로 사실상 철회됨.

- 대신 2025년 12월부터 PSV와 GWSV 계절 비자가 도입돼 최대 7개월 단기 노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비자 비용과 요건 강화로 태평양 노동자의 접근성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됨.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태평양 국가와의 장기적 노동 협력과 산업 인력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3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30	2026-02-12/ 2026-02-13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19	2026-02-17/ 2026-02-19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30	2026-03-05/ 2026-03-06	유류 및 하역	TIMARU
DW NEW ZEALAND LTD.	DONG WON 519	2026-02-21/ 2026-02-21	수리	TIMARU
JAICO LTD	FORTUNUI	2026-02-11/ 2026-02-12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6-02-12/ 2026-02-13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FORTUNUI	2026-02-26/ 2026-02-27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PACINUI	2026-03-04/ 2026-03-05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HAPPINUI	2026-02-09/ 2026-02-11	유류 및 하역	DUNEDIN
JAICO LTD	HAPPINUI	2026-03-02/ 2026-03-04	유류 및 하역	DUNEDIN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3.04	Z	MGO Dunedin 0.949USD/L	MGO	

다. 주요 어종 어가 동향

어종	규격(사이즈)	단가
SQUID	3L/2L/L/M/2M/S/2S	-/4355/5100/4700/4600/4200/2950 USD/MT

라. 해양·수산업 동향

□ 뉴질랜드 수역 어업 개편 논란

- 무엇이 논란인가? 뉴질랜드 정부가 수십 년 만의 대규모 어업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업계·환경단체·정치권 사이에서 “역대급 기회인가, 아니면 총체적 난장판인가” 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 개편의 중요 내용 : 뉴질랜드는 수산관리 개편을 통해 TAC(총허용어획량)를 기존 연간 조정 방식에서 3~5년 단위의 다년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자원 변동에 따라 자동 조정되는 규칙을 도입할 계획임. 또한 TAC 설정 시 생태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지역사회·산업 영향과 경제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관리 대상 어종 확대를 위해 자원 평가 범위도 넓힐 예정임.
감시 체계에서는 온보드 카메라 규정을 위험도 기반 차등 적용 방식으로 조정하고 전자보고·관찰원·카메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추진함. 또한 QMS(쿼터제) 운영에서는 조건부 재투기 허용과 혼획 관리 유연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자원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방향을 제시함.
- 업계의 반응 : 뉴질랜드 수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음. 일부 업계는 규제 완화와 운영 유연성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다른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이 불명확하고 준비가 부족하다며 줄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음. 특히 온보드 카메라 규정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업 감시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환경단체의 우려 : 일부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번 수산 정책 개편에 대해 남획 위험 증가, 감시 약화, 생태계 기반 관리 후퇴 가능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 또한 정책이 산업계 요구에

지나치게 치우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정치적 배경 : 새 정부는 어업 산업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해당 정책이 환경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하고 있어 수산 정책 개편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9. 모리셔스

◆ 1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SNC Saint Andre	LE SAINT ANDRE (France Flag)	2025-11-11/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Seatrade Groningen	AFFINIS (Panama Flag)	2025-12-21/	하역	포트루이스 (CNOI)
Austral Fisheries	CAPE ARKONA (Australia Flag)	2025-11-24/	상가수리	포트루이스 (CNOI)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 01. 08.	ENGEN	0.97 USD/L	MGO	

다. 해양·수산업 동향

- UNECA 보고서, 서부 인도양 해양 위협으로 연간 11억 달러 이상 경제적 손실 발생 경고
-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는 서부 인도양 지역이 IUU 어업, 해적 행위, 불법 밀거래, 해상 이주, 유류 유출 등 복합적인 해양 위협으로

인해 연간 약 11억4천만 달러(지역 해양 생산의 약 5.7%)의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분석함. 이러한 위협은 약 3,338억 달러 규모의 해양 자산과 연간 최소 200억 달러의 해양 경제 수익, 지역 주민의 생계와 식량 안보에도 큰 압박을 주는 것으로 평가됨.

- 보고서는 대응 방안으로 해양 안보를 블루 이코노미 정책에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조달, 데이터 공유 기반 감시 역량 강화, 지역 해양 정보·작전 센터 협력 확대, 공동 해상 순찰 및 IUU 대응 법률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함.

□ 인도양 포커스: 이란-모리셔스,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 이란과 모리셔스는 포트루이스에서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인도양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해양 안보 협력과 양자 관계 강화를 논의함. 양국은 해적 행위와 불법 밀거래 대응, 주요 항로 감시, 에너지 수송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순찰과 조기 경보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함.
- 또한 무역·관광·해양 인프라·지속가능 개발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 해양 안보 실무그룹 구성과 IORA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안정과 경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 2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RAWANQ AL SALAM INTERNATIONAL (OMAN)	LAYLA (Oman Flag)	2026-01-10/	수리	포트루이스 (CNOI)
SL Shipholding SA	ORANGE SEA (Italian Flag)	2026-01-14/	하역	포트루이스 (CNOI)
Bermeo (Naviera Galdar SA)	IZAR ARGIA (Spanish Flag)	2026-01-14/	하역	포트루이스 (CNOI)

Reunion Peche Australe	TLAS COVE (French Southern Territorie)	2026-02-02/	수리	포트루이스 (CNOI)
------------------------	---	-------------	----	--------------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2.06	ENGEN	0.76 USD/L	MGO	

다. 해양·수산업 동향

- 모리셔스 Greenpeace Africa 사무소 개설 및 인도양 해양 보호 활동
 - 2026년 1월 Greenpeace Africa는 모리셔스 포트루이스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인도양 해양 보호 활동과 High Seas Treaty 대응을 본격화함. 이번 사무소는 해양 생태계 보호 정책 참여 확대, 불법 어업·오염 감시, 지역 공동체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모리셔스 정부도 블루이코노미 촉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으로 평가함.
 - 모리셔스는 기후변화와 해양오염 등 복합적 해양 위협에 직면한 국가로, 해당 사무소는 해양 보호 정책 추진과 지역 협력, 교육·캠페인 활동을 통해 인도양 해양 관리와 지속가능한 블루이코노미 발전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됨.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항만 개발 논의
 - 모리셔스 정부는 부총리 Paul Bérenger 주재 범부처 위원회를 통해 포트루이스 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 항만 현대화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항만기관·민간 부문이 참여해 거버넌스와 운영 효율성, 물동량 처리 역량 개선 필요성을 확인함.
 - 정부는 약 54억 루피를 투자해 크루즈 부두 확장, 연료 전용 부두 건설, 예인선 확보, 컨테이너 터미널 확장 등을 추진하고 CHCL 구조조정과 인력 교육, 장비 현대화를 병행해 모리셔스를 인도양

해양 물류 허브로 육성할 계획임. 또한 EU 기술 지원을 통한 국제 협력도 함께 추진할 방침임.

◆ 3월 보고서

가. 선박 입·출항 동향

회사명	선박명(업종)	입/출항일	입항목적	항구
RAWANQ AL SALAM INTERNATIONAL - (OMAN)	LAYLA (Oman Flag)	2026-01-10/ 2026-02-26	상가수리	포르투이스 (CNOI)
Salgir Shipping Ltd	SALGIR (Panama Flag)	2026-02-16	하역	포르투이스 (CNOI)
ALBACORA S.A - MADRID	ALBACAN (Mauritius flag)	2026-03-09	상가수리	포르투이스 (CNOI)

나. 유류가격 동향

조사일	회사명	가격	유종	기타
2026.03.05.	ENGEN	0.81 USD/L	MGO	

다. 기타사항

- 지속가능한 어업 및 해양 보존 관련 브리핑
 - 모리셔스 Albion Fisheries Research Centre(AFRC)에서 지속가능한 어업과 해양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블루 이코노미 성과를 소개

하기 위한 언론 관계자 대상 견학 프로그램이 개최됨. 이번 행사는 모리셔스 주재 일본대사관,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AFRC가 공동 주관했으며, 일본과 모리셔스 간 해양 협력 성과와 향후 추진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짐.

- 일본은 1980년 AFRC 건설을 무상 원조로 지원한 이후 수산 교육, 해양 과학 연구, 양식업 개발, 연안 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리셔스 수산업 발전을 지원해 왔음. 양국은 통합 해안 생태계 관리 시스템 구축과 연안 주민 생계 개선 지원을 주요 협력 분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리셔스 정부는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산 연구 역량 강화와 블루 이코노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언론의 역할을 통해 산호초, 맹그로브, 해양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됨.

□ 해양 주권: 불법 어업에 맞선 지역 협력을 촉진한 Jahazi 프로젝트

- 남서 인도양에서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이 어획량 감소와 소득 감소 등 해안 지역 주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년 약 4억1,5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외국 원양어선단의 대규모 조업과 중국 어선 활동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이에 따라 Jahazi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 협력이 확대되었으며, 2026년 1월 잔지바르 회의에서 규제 조화, 정보 공유 확대, 단속 협력 등을 포함한 ‘결의 및 권고 협약’이 체결되어 남서 인도양 지역의 공동 대응과 블루 이코노미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참고

명예해양수산관 현황 및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주소
남태평양 도서국	 허성림 (‘55년생)	Tel. +1-684-699-6545	P.O.BOX 3170, Pago, pago American Samoa 96799
		Mobile +1-684-733-4567	
		e-mail hhsamsung@yahoo.com	
피지 (+3시간)	 김종태 (‘68년생)	Tel. +679-330-7188	44 Pathik Namadi Heights, Suva, Fiji
		Mobile +679-999-2523	
		FAX +679-331-1705	
파푸아뉴기니 (+1시간)	 정승화 (‘65년생)	e-mail ckpfj@naver.com	P.O.Box 619, Gordons, N.C.D., Papau New Guinea
		임기 '24.06.01. ~ '26.05.31.	
		Tel. +675-321-8137	
파푸아뉴기니 (+1시간)	 정승화 (‘65년생)	Mobile +675-7928-8888	P.O.Box 619, Gordons, N.C.D., Papau New Guinea
		FAX +675-321-4224	
		e-mail jc651016@gmail.com	
남아메리카	 이상우 (‘75년생)	임기 '25.05.10. ~ '27.05.09.	P.O.Box 619, Gordons, N.C.D., Papau New Guinea
		Tel. +675-321-8137	
		Mobile +675-7928-8888	
동남아시아	 박상천 (‘65년생)	FAX +675-321-4224	P.O.Box 619, Gordons, N.C.D., Papau New Guinea
		e-mail jc651016@gmail.com	
		임기 '25.05.10. ~ '27.05.09.	
남아메리카	 이상우 (‘75년생)	Tel. +54-223-495-0712 /493-4934	Marcos Sastre 1660 Mar del plata Bs.As Argentina c.p 7600
		Mobile +54-9-223-546-3919	
		e-mail kargeexport@gmail.com	
동남아시아	 박상천 (‘65년생)	임기 '24.06.01. ~ '26.05.31.	Rukan Avenue Nomor 8-135 Perumahan Jakarta Garden City Cakung Timur Jakarta 13910 Indonesia
		Tel. +62-21-2287-4165	
		Mobile +62-821-2534-3214	
아프리카·대양주	 이윤홍 (‘60년생)	e-mail scpark@hyundaimovex.co.id	HOUSE NO. RP/2/19. COMM2, NEAR FISHERIES BLDG, PMB COMM 1, TEMA, GHANA
		임기 '25.10.15. ~ '27.10.14.	
		Tel. +62-21-2287-4165	
아프리카·대양주	 이윤홍 (‘60년생)	Mobile +233-303-200995	HOUSE NO. RP/2/19. COMM2, NEAR FISHERIES BLDG, PMB COMM 1, TEMA, GHANA
		Mobile +233-24-2168654	
		FAX +233-303-200933	
아프리카·대양주	 이윤홍 (‘60년생)	e-mail skshipafrica@yahoo.com	HOUSE NO. RP/2/19. COMM2, NEAR FISHERIES BLDG, PMB COMM 1, TEMA, GHANA
		임기 '24.06.01. ~ '26.05.31.	
		e-mail sskmarco@yahoo.com	
아프리카·대양주	 추호철 (‘55년생)	Mobile +221-77-644-9694	431, APPT AXA, HANN MARISTE, DAKAR, Senegal
		e-mail okpechechu@gmail.com	
		임기 '26.01.04. ~ '28.01.03.	
아프리카·대양주	 윤정환 (‘52년생)	Tel. +64-3-344-1617	PO BOX 20473 Bishopdale(P.C8 543) 335 West Coast Road, Templeton,(P.C7 676)Christchurch, New Zealand
		Mobile +64-27-437-6210	
		FAX +64-3-3444-1617	
아프리카·대양주	 윤정환 (‘52년생)	e-mail seajho@xtra.co.nz	PO BOX 20473 Bishopdale(P.C8 543) 335 West Coast Road, Templeton,(P.C7 676)Christchurch, New Zealand
		임기 '24.08.20. ~ '26.08.19.	
		Tel. +64-3-344-1617	
인도양	 이동춘 (‘62년생)	Mobile +10-5796-5453	International Korean Marine Ltd. Albion Docks, Trou Fanfaron Port Louis, Mauritius 11230
		e-mail kmarinelee@gmail.com	
		임기 '25.10.15. ~ '27.10.14.	